신안 임자 해변 말축제 지난 14일 신안 임자해변에서 열린 '해변 말 축제'에 참가한 승마 동호인들이 말을 타고 해변을 거닐고 있다.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축제에서는 5km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비롯해 애마 콘테스트· 말수영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700만 명 분 846억 원어치 신종플루 백신 폐기될 처지

정부가 구매한 신종플루 백신 846억원어치가 유통기한 만료로 내년 1월까지 폐기될 처지에 놓여 활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창고에 잠자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백신 총 700만명분(846억원 상당)이 유통기한 종료로 순차적으로 폐기처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부터 시행돼 내년초까지 폐기처분해야 하는 유통기한 만료 신종플루 백신은 9월 3000명분, 10월 6만명분, 11월 44만명분, 12월 188만명분, 내년 1월 505만명분이다. 지난 7월까지 이미 폐기된 백신은 94만5000명분(66억1900여만원)이다.

8월13일 현재 광주에서 폐기된 백신은 동구보건소 7254명분·서구보건소 6844명분·남구보건소 4398명분·북구보건소 8226명분·광산구보건소 7254명분 등 3만3976명분이다. 전남에서 폐기된 백신은 나주시 보건소 1만228명분·여수시 8430명분 등 22개 시·군에서 총 4만8531명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0일 신종플루 대유행 종료를 1년2개월 만에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내년까지 신종플루 백신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백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올해 새로 공급되는 계절독감 백신은 신종플루를 포함해 한번에 3가지 유형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신종플루 백신이 소진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활용된다 하더라도 그 양이 미미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예측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신종플루 백신이 과잉 공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있었던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비난보다는 남아있는 재고량을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치 100년 기억 '친일음악회'

"부끄러운 역사 잊지 말자" 28일 금남공원서

현제명 등 친일 작곡가 노래 20~30곡 연주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국권 침탈 100주년을 맞아 '국치 100년 기억 친일음악회'를 개최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국권 침탈의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국권 침탈 100년을 하루 앞둔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금남공원에서 음악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음악회에서는 현제명, 박시춘 등 친일파 작곡가들의 노래 20~30곡이 연주된다.

채동선 등 항일 작곡가의 노래와 독립군들이 불렀던 독립군가도 함께 연주되며, 일본의 영향을 받은 동요와 학도병 출정가 등이 담긴 영상물도 상영된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김순흥 지부장은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열리고 있는 한일시민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많은 노래들이 친일 작곡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곡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남구청 인사 잡음

기술직 5급 승진자 발표 보류해 논란

광주시 남구가 5급 사무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기술직 5급 승진자 발표를 이례적으로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민선 5기 첫 인사를 통해 5급 지방사무관 26명에 대한 승진(2명) 및 전보(24명)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당초 인사 예고(12일)에 포함됐던 5급 승진자 3명 가운데 행정직 승진자 2명만을 발표하고, 나머지 1명인 5급 기술직 승진자 명단이 제외했다.

남구는 '인사 잡음'을 이유로 5급 기술직 승진자 발표를 6급 이하 인사 시점으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직급에서 행정직 승진 인사를 먼저 하고, 기술직을 보류하는 것은 관례상 이례적인 일이어서 직원들은 물론 구청 주변이 억측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남구청 주변에서는 지방선거 직후라 승진 인사와 관련해 청탁은 물론 외부 입김 등 각종 '잡음'이 일어 인사가 늦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기술직 인사를 두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발생해 인사를 보류했다"며 "이번 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 5급 기술직 승진인사는 6급 인사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학생독립운동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단

학생독립운동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터넷 사이트가 구축됐다.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단은 지난 1년간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학생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indi1929.org'를 주소로 한 이 사이트에는 단행본 858편, 석·박사 학위논문 66편, 전문학술논문 381편, 언론보도자료 3천840건, 재판자료 146건, 참가자 개인자료 2천053건, 참여학교 330개교, 참가단체 446개 등 학생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총망라돼 있다.

연구단은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한국역사통합자료실, 국가기록원, 대전 현충원 등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수집하고 애국지사와 후손들을 직접 방문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특히 당시 150여개의 학교가 참여한 북한의 학생독립운동 연구현황과 기념사업에 대한 자료도 수록돼있다.

연구단 관계자는 "이 자료들은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수천명의 애국지사나 관련 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족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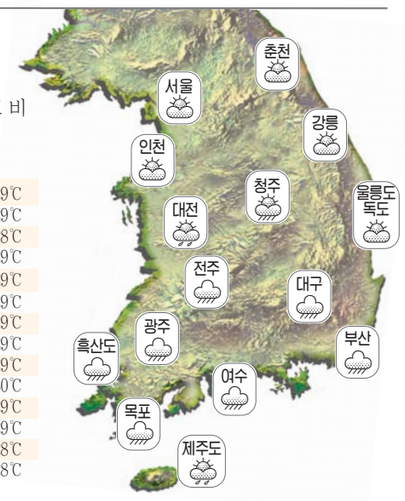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3분 / 해짐 19시 21분 — 달뜸 12시 44분 / 달짐 22시 58분

천둥·번개 주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6/29℃
목 포	흐리고 비	25/29℃
여 수	흐리고 비	25/28℃
완 도	흐리고 비	25/29℃
구 례	흐리고 비	25/29℃
해 남	흐리고 비	25/29℃
장 흥	흐리고 비	25/29℃
고 흥	흐리고 비	25/29℃
순 천	흐리고 비	25/29℃
영 광	흐리고 비	25/30℃
진 도	흐리고 비	25/29℃
전 주	흐리고 비	24/29℃
남 원	흐리고 비	25/28℃
흑산도	흐리고 비	23/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06:19 19:12	11:31 --:--
여수	00:42 13:40	06:52 19: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날 씨						
최저/최고	25/30	24/32	24/32	25/32	25/32	25/32

소나기 내려도 '후텁지근'

습도 올라가 '짜증 날씨' 계속

소나기가 내리면 시원해진다? 답은 'NO'다.

최근 폭염 속에 국지성 소나기가 자주 내리지만 오히려 후텁지근하고 덥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시적으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쏟아지는 국지성 소나기는 뜨거운 공기를 머금고 있는 '잡열(雜熱)'을 주변 지역으로 방출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다소 떨어져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인근 지역은 되레 기온이 상승한다"며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습도도 크게 올라 불쾌지수가 80을 넘는 짜증스런 날씨가 계속 된다"고 설명했다.

한밤중 후텁지근한 것도 같은 원리. 해가 지면서 기온은 점차 낮아지지만 소나기가 내리면 주변 지역으로 열을 방출하면서 습도가 증가, 열대야(熱帶夜·최저기온 25도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15일 시간당 17㎜의 강우량을 보인 광주는 낮 최고기온이 30.4도 최저기온이 25.8도를 기록했으며, 시간당 31㎜의 폭우가 쏟아진 순천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31.4도·아침 최저기온은 25.6도를 기록했다. 이날 장흥은 낮 최고기온 30.8도·최저기온 27.3도·강우량 6.5㎜를 기록했다.

한편 기상청은 "1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16일 밤부터 17일 오전 사이에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기온과 습도가 높아 시민들의 불쾌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